Rephrasing Inordinacy \_ 다세대주택의 재해석

이태원 남쪽, 언덕의 능선을 따라 남쪽으로 길게 나 있는 길 우사단로의 양옆에는 70~80년대에 지어진 듯해 보이는 나지막한 건물들이 빈틈없이 붙어있고, 난개발된 다세대주택들이 온 언덕을 덮고 있다. 이곳에 있는 매장들은 대부분 지어진 지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구불구불하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벽과 통로, 계단이 서로 어긋나고 교차하기도 하며 막히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연장되는 등 역동적인 공간을 마주하게 된다. 이곳의 건물들은 좁은 면적 안에 많은 사람이 삶을 구성하면서 쪼개고 합치고 메꾸는 것을 반복되었고, 이 와중 만들어진 공간들은 제각각 비정형적이며 때론 불편하고 우스꽝스럽지만, 생동감이 넘치게 된다.

나는 이러한 주택 건물들의 즉흥적이고 불규칙하며 다소 불편한 공간 활용과 동선, 거듭 개조된 구조 곳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생활상과 흔적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흥미롭고 독특한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쾌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창작자들의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